

僞使 연구의 현황과 과제

韓文鍾

- | | |
|---------------------|--|
| I. 머리말 | 5. 일본의 국내정세 불안 |
| II. 僞使의 개념 및 기준 | 6. 일본의 외교체제의 모순 |
| III. 僞使의 발생배경 | 7. 대마도의 자연환경 및 경제적 빈곤 |
| 1. 왜구문제 | IV. 위사의 파견 실태 및 주체 |
| 2. 왜인통제책의 정비 | V. 금후의 연구과제 |
| 3. 일본 국내정세에 대한 정보부족 | 【조선전기 한일관계사 연구 논문 목록
(1945년~2003년)】 |
| 4. 일본국왕사에 대한 우대 | |

I. 머리말

조선전기는 9세기 말 아래 단절되었던 외교관계가 5백여 년만에 재개되어 한일 양국이 交隣關係에 입각한 사절의 왕래를 통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한 시기이며, 또한 조선 후기 대일외교의 근간을 형성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일간의 외교관계에서 조선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전기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는 물론 최근까지도 일본측이 주도해왔으며, 그 결과 한국학계에서는 일본학계의 주장이 상당 부분 비판없이 수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村井章介 등을 중심으로 하여 민족국가의 틀을 벗어나는 경계지역을 설정하고 '海域史'를 제창하여 중세 후기의 왜구의 활동을 재평가하기도 하였다.¹⁾

반면에 국내에서는 1990년 이후 소장 학자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고대와 근·현대를 중심으로 이루

1)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佐伯弘次, 2002, <전후 일본에 있어서 중세 일조관계사연구> 『韓日關係史의 回顧와 展望』, 國學資料院

어지고 있어서 조선전기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²⁾ 특히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중에서 假使問題는 연구가 매우 부진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당시에는 매우 민감하고 은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많지 않은 데다가 朝鮮·日本·琉球의 사료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정밀하게 대조 검토하여야 하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가 매우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假使는 외교사상 매우 보기 드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당시 朝·日 양국관계의 특수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조일외교의 성격 및 특징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위사에 대한 연구는 河宇鳳, 孫承喆, 閔德基, 韓文鍾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행하여졌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³⁾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조선시대 한일간의 외교관계에서 나타난 '假使'에 대해서 국내의 연구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연구의 문제점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假使의 개념 및 기준

조선전기에 朝鮮國王과 幕府將軍간에는 敵禮關係의 交隣外交, 조선국왕과 九州節度使·大內殿·對馬島主 등의 지방호족과는 犬馬關係의 交隣外交라는 多元的이고 中層의인 외교관계에 입각하여 사절의 왕래가 활발하게 행하여졌다. 특히 일본국왕사

-
- 2) 韓文鍾, 2002, <조선전기 한일관계연구의 회고와 전망> 『韓日關係史의 回顧와 展望』, 國學資料院
- 3) 孫承喆, 1992, <朝鮮前期對琉球交隣體制의 構造와 性格> 『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河宇鳳 1994, <朝鮮前期의 對琉球關係> 『國史館論叢』 59, 國史論文會
閔德基, 1994, <朝鮮朝前期の‘日本國王’觀 -敵禮の面から-> 『前近代東アジアのなかの韓日關係』, 早稻田大學出版部
韓文鍾, 2000, <조선전기 日本國王使의 對朝鮮通交>(한일관계사학회 월례발표요지)
韓文鍾, 2002, <조선전기 일본의 大藏經求請과 한일간의 문화교류> 『韓日關係史研究』 17, 한일관계사학회
이지선, 2002, <朝鮮前期 日本國王使 研究>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위의 논문 중에서 孫承喆과 河宇鳳은 琉球國王使를 사칭한 위사, 閔德基와 韓文鍾, 李志善은 日本國王使를 사칭한 위사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를 비롯하여 지방호족이 파견한 사절은 무려 4800여회에 달한 정도로 많았다. 이러한 일본으로부터의 사절 왕래는 양국의 평화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의 사절 중에는 일본국왕사 또는 지방호족을 사칭하거나 圖書·書契·文引 등을 위조해서 도항하는 ‘僞使’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위사’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사의 개념이나 기준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의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행하여졌다. 그 중 米谷均은 위사를 “제3자가 어떤 通交名義를 사칭해서 파견하는 허위의 사절”로, 伊藤幸司는 “파견 주체 또는 사인이 통교명의를 사칭하는 사절”로 정의하였다.⁴⁾ 또한 伊藤幸司는 ①通交名義나 서계의 상태, ②일본국왕사나 巨酋使의 사절이 외교승이 아니고 俗人인 경우, ③宗成職 이후 통교를 하기 시작한 深處倭, ④일정기간 통교가 단절되었다가 宗成職 이후에 통교를 다시 재개한 심처왜 등은 위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를 위사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위사에 대한 개념과 기준은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書契·圖書·文引을 소지하지 않은 사절과 수직인·수도서인·세전선정약자가 아닌 자가 도항해 온 경우에 이를 위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 등 위사의 범위와 기준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僞使」의 使는 使臣, 使節, 使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국가의 공식적인 외교사절 또는 사신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전기 일본에서 조선에 도항하는 자들은 국가간의 공식적인 사절이 아닌 통상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통교자 또는 통교무역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⁵⁾ 따라서 거짓의 통교자 또는 통교무역자를 僞使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들의 성격 및 도항목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의미에서 「통교위반자」로 부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사에 대한 개념과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米谷均, 1997, <16世紀日朝關係における僞使派遣の構造と實態> 『歴史學研究』 697

伊藤幸司, 2002, <僞使の時代> 村井科研福岡심포지움 發表要旨

5) 中村榮孝와 田中健夫는 조선전기 일본에서 조선에 도항한 자들을 「通交者」 또는 「通交貿易者」로 통칭하였다. 「通交者」와 「通交貿易者」는 국가의 공식적인 외교사절이 아니라 통상교역을 목적으로 조선에 도항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田中健夫, 1975, 『中世對外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동경) 124~125. 中村榮孝, 1969, 『日本と朝鮮』(東京, 至文堂)

III. 僞使의 발생배경

위사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크게 조선측의 요인과 일본측의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조선측의 요인으로는 멀리는 왜구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왜인에 대한 통제책의 정비, 일본국왕사에 대한 우대, 일본의 국내정세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으며, 일본측의 요인으로는 일본의 국내정세 불안, 외교체제의 모순, 대마도의 자연환경 및 경제적 빈곤, 그리고 교역을 통한 무역이익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위사의 발생은 이러한 점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왜구문제

倭寇는 13-16세기에 걸쳐 중국 또는 조선의 연해에서 활동한 일본인의 해적집단을 총칭하는 말이다.⁶⁾ 이들倭寇는 활동시기와 성격에 따라 전기왜구와 후기왜구로 나눌 수 있다. 전기왜구는 13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활동한 왜구로서 주로 한반도와 중국 연안에서 활동하였고, 무역 외적인 측면이 많았다. 후기왜구는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말까지 활동한 왜구로서 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연안에서 활동하였고, 무역적인 요소가 강하여 ‘武裝商人’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전기왜구에 대한 연구는 이미 明治 20년대부터 中世海賊史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식민통치시기부터 많은 연구가 행하여졌다.⁷⁾ 그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1957년 申基碩의 연구 이후 申庚鎬, 李鉉淳, 孫弘烈, 羅鍾宇 등의 학자들에 의해 왜구의 발생배경, 침입실태, 왜구대책에 대한 연구가 행하여졌다.⁸⁾ 그런데 왜구의 연구에서 양국 학자들 사이에 커다란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6) 中村榮孝,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 上, 吉川弘文館, 51.

7) 中世倭寇研究史에 관해서는 田中健夫, <中世海賊史研究の動向> (『中世海外交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59) 에 明治時代, 大正時代, 昭和 20년 이전, 소화 20년 이후 등 4시기로 연구동향과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왜구에 관한 일본에서의 연구목록은 한일관계사학회편, 『韓日關係史 論著目錄』 (현음사, 1993)을 참조하기 바람.

8) 韓文鍾, 2002, <조선전기 한일관계연구의 회고와 전망> 『韓日關係史의 回顧와 展望』, 國學資料院

왜구의 발생원인 및 왜구의 구성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먼저 국내학자들은 왜구의 발생원인을 고려의 국내적 요인과 일본의 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파악하였는데,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공민왕의 반원정책 추진과 개혁정책의 미숙, 그리고 權門勢族의 득세와 토지겸병으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인 혼란과 왜구에 대한 통제력 약화 등을 들었으며, 일본측의 요인으로는 남북조의 爭亂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과 중앙통치권의 해이, 그리고 국내상업의 진전, 무력적 상인, 해적군의 해외활동, 邊民들의 해상활동의 자유 등을 들고 있다. 그에 반해 일본학계에서는 왜구를 고려의 정치 불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왜구의 창궐과 소멸을 모두 한반도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원인제공에 대한 사실 규명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⁹⁾ 이러한 일본학자들의 연구경향을 반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金普漢은 일본내의 정치상황 변화와 일본사에서 왜구의 관련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았다.¹⁰⁾ 최근에 이르러서야 일본사의 입장에서 왜구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남북조 내란기 惡黨세력의 활동과 兵糧米의 확보로 보는 견해와¹¹⁾ 九州 松浦지역 小武士들의 자의적인 해적 활동으로¹²⁾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왜구 창궐의 원인에 대해서도 九州探題 今川了俊의 독자적인 권력 강화에서 이탈한 <反探題勢力>의 집단행동으로¹³⁾ 파악함으로서 九州의 정치상황 변화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또한 왜구의 소멸을 九州 松浦지역 在地勢力의 자발적인 규제와 그들의 동향,¹⁴⁾ 그리고 왜구 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浦內의 고밀도화를 공동어업권의 분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¹⁵⁾는 견해를 제기하는 등 일본사적 해석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에 국내에서는 일본의 정치적 상황으로 접근해서 왜구의 발생 원인과 창궐의 이유, 그리고 소멸 과정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왜구의 실체는 九州내의 反探題勢力, 전통적인 해적집단, 惡黨人们이며, 발생원인

9) 일본학계에서는 왜구의 발생 및 발호의 원인에 대해서 森克己의 武裝商人團說과 田中健夫·田村洋幸의 고려측의 무역체한과 田制紊亂이 왜구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설, 青山公亮의 元寇에 대한 복수설, 기타 對馬나 壇岐 등 九州地方의 경제적인 빈곤 또는 경제적 성장이 왜구발호의 원인이 되었다는 설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10) 김보한, 1999, <一揆와 倭寇> 『日本歷史研究』 10, 일본역사연구회

김보한, 2001, <少貳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日本歷史研究』 13, 일본역사연구회

11) 李領, 2000, <<庚寅年 倭寇>와 일본의 국내정세> 『國史館論叢』 92

12) 김보한, 1999, <一揆와 倭寇> 『日本歷史研究』 10

13) 김보한, 2001, <少貳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日本歷史研究』 13집

14) 주 11)과 같음

15) 김보한, 2001, <海洋文化와 倭寇의 소멸> 『문화사학』 16

도 규슈의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통제 불가능한 이들 세력의 자의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것이다.

한편, 왜구의 구성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李領은 14세기 후반 고려측의 사료에 등장하는 왜구집단의 주체가 고려·조선인 또는 고려·일본인연합이었다¹⁶⁾는 일본 학계의 제설을 재검토하였다. 그는 『高麗史』의 왜구관련 사료를 분석하여 사료의 신빙성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田中健夫가 주장하는 왜구=고려·조선인 연합론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그는 田中健夫가 倭寇 = 高麗·朝鮮人說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李順蒙의 상서내용은 고려말에 流民들이 假倭로서 활약하였다는 소문을 근거로 流民에 대한 대책을 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경인년(1350)년 이후의 왜구의 주체는 남북조의 내란이라고 하는 특수상황하에서 對馬·壹岐를 중심으로 한 九州일대와 四國의 악당화한 武士들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경인년(1350) 아래 왜구가 창궐하게 된 배경은 北條氏인 得宗 정권의 사회적 모순에 의한 惡黨들의 분쟁과 수십년간 전개된 남북조의 내란으로 남조의 征西將軍府가 九州와 瀨戶內海 지역의 악당을 南朝側의 군사력으로 동원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남조에 속하였던 足利冬直과 小二賴尚이 구주쟁탈을 둘러싼 공방이 격렬해짐에 따라 小貳賴尚이 군량미의 확보를 위해서 수세기에 걸쳐 지배해온 대마도 세력(守護代宗經茂)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고려에 침입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¹⁷⁾

또한 이영은 경인년(1350) 이후의 왜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그 동안 소홀하였던 13세기의 왜구에 주목하여 '13세기의 왜구'와 '경인년(1350) 이후부터 1392년까지의 왜구를 비교하고, 여몽연합군의 일본침공 이후 14세기 중엽까지 왜구가 극소수밖에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일본의 국내외적 정세와 연관지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당시 대마도를 지배하고 있던 小貳氏와 宗氏가 왜구의 공백기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경인년 이후의 왜구는 13세기의 왜구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적하고 왜구의 공백기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은 麗日間

16) 田中健夫는 다량의 인원, 선박, 馬匹의 해상이동 등을 고려하면 왜구는 일본인만의 해적 집단이 아니라 일본인과 고려·조선인과의 연합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고려·조선측의 연합의 구성원을 禾尺(楊水尺)·才人·일반농민·제주도인이라고 추정하였다. 특히 田中健夫씨는 倭寇 = 高麗·朝鮮人說의 근거로 다음의 사료를 들고 있다. “判中樞院事 李順蒙上書曰 … 臣聞 前朝之季 倭寇興行 民不聊生 然其間 倭人不過一二 而本國之民 假著倭服 成黨作亂 是亦鑑也”(『세종실록』 권114, 28년 10월 임술) (田中健夫, 1987, <倭寇と東アジア通商圏> 『日本の社會史』 1, 岩波書店, 147~151).

17) 李領, 1996, <고려말기 왜구구성원에 관한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5, 한일관계사연구회

의 군사적 긴장과 德宗政權의 海上警固策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대마도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小貳氏와 宗氏가 왜구의 발생, 금압, 발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왜구사에서 대마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였다.¹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왜구 연구는 1990년대 이전에는 왜구의 발생배경, 침입실태, 근거지, 왜구에 대한 대책 등에 집중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왜구=고려·조선인연합론에 대한비판과 더불어 왜구의 발생배경을 일본의 국내정세와 연관지으려는 연구가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최근 한일관계사를 동아시아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재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왜구에 대한 새로운 이해인데, 田中健夫는 고려말기의 대규모의 왜구는 일본인과 고려인의 연합이었고, 구성원의 대부분은 고려인이었다고 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高橋公明도 고려의 해상세력에 주목하여 같은 견해를 보였다. 즉 왜구 중에는 해상세력이 많이 관여하고 있었으며, 그 해상세력을 제주도의 海民으로 상정하고 있다.¹⁹⁾ 村井章介는 두 사람의 倭寇論에 찬성하면서 국경을 넘은 ‘還支那海域’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왜구와 중세 일본이 조선과 행하였던 교역을 논했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와 민족의 틀에서 탈피하여 동아시아 해역의 주민교류에 주목한 점에서 출발하였다. 한편 국내 학계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시각에 대한 연구사적 의미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전기왜구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후기왜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후기왜구는 위사의 파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행하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사는 왜구의 금압 및 왜인통제책의 실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구문제를 위사의 발생배경과 연관지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왜인통제책의 정비

朝鮮前期 대일외교의 핵심은 왜구의 금압과 통교왜인에 대한 통제였다고 할 수 있

18) 李領, 1997, <‘倭寇의 공백기’에 관한 고찰> 『일본역사연구』 5, 일본역사연구회

19) 高橋公明, 1989,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 -濟州道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이 논문은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一濟州道を中心とし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文集史學』 33, 1987)를 한글로 번역하여 수록한 것이다.

다. 이에 조선에서는 건국직후부터 海洋의 방어에 충실히 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과 왜구에 대한 회유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왜구대책에 따라 왜구가 통교자로 전환하여 조선에 도항하자 조선에서는 이들에 대한 통체와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왜인들이 정박하는 浦所를 제한하는 한편 書契, 圖書, 文引과 歲遣船의 정약 등 여러 가지 통제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교왜인들이 三浦에 도착해서 다시 일본으로 귀국할 때까지 過海糧, 上京日數, 留浦日限 등의 접대절차와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이러한 왜인통제책과 접대규정에 대한 제도사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文引制度와 癸亥約條, 授職制와 授圖書制는 대마도주를 비롯한 지방호족들을 기미관계의 외교체제 속에 편입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후 대일통교체제의 근간이 되었음이 밝혀졌다.²⁰⁾ 그런데 왜인통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선과의 독자적인 통교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圖書나 書契, 文引 등을 위조한 위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편, 조선에서는 통교왜인에 대한 통체를 조선정부가 직접하지 않고 대마도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택하였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문인제도로, 이는 조선에 도항하는 모든 왜인은 대마도주가 발행하는 문인을 가지고 와야만 접대와 교역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대마도주는 조선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문인발행권을 위사를 파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 같이 대마도주가 위사의 파견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으로서는 위사를 판별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대마도주를 통한 간접통제방식과 문인제도의 모순이 위사의 파견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조선에서는 통교자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授職制와 授圖書制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三浦倭亂 이후 對馬島主는 폐지되었던 수직·수도서왜인의 통교를 부활하면서 이들의 통교권을 본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도주가 통교권을 독점하고 본래 소유자 명의의 僞使를 파견함으로써 조선과의 통교를 독점해 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왜인에 대한 통제책의 실시는 위사 파견의 배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사적인 연구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왜인통제책과 위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 韓文鍾, 2002, <조선전기 한일관계연구의 회고와 전망> 《韓日關係史의 回顧와 展望》, 國學資料院

3. 일본 국내정세에 대한 정보부족

조선에서는 대일사행을 통해서 일본의 국내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런데 1443년(세종 25년) 卞孝文의 사행을 끝으로 幕府將軍이 거주하는 京都에 도달한 사행이 없었다. 따라서 일본 국내사정에 대한 정보는 주로 대마도에 파견한 사행을 통해서 입수하거나, 대마도주 또는 조선에 온 통교왜인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마도주나 통교왜인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직접 見聞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확한 것이 많았다. 또한 삼포왜란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쇠퇴하면서 일본에 대한 정보도 더욱 더 부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국내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결국 일본에서 위사의 파견을 가능하게 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일본 국내정세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는 결국 일본의 침략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임진왜란이라는 대전란을 맞이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4. 일본국왕사에 대한 우대

조선에서는 倭使를 國王使, 巨酋使, 九州節度使 · 對馬島主特送, 諸酋使 및 對馬島受職人 등 4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접대하였다. 그 중 일본국왕사는 다른 사절과는 달리 통교에 제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접대와 교역 등 모든 면에서 우대를 받았다. 이러한 교역 상의 이익 때문에 대마도주를 비롯한 왜인들이 일본국왕사를 사칭하는 위사를 파견하려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마도주는 삼포왜란이후 축소된 대조선통교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일본국왕사를 사칭한 위사를 파견하였던 것이다. 국왕사에 대한 우대는 유구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琉球國王使를 사칭하는 위사도 나타났던 것이다.

5. 일본의 국내정세 불안

일본에서는 약 6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조의 혼란기를 1392년에 足利義満이 통일하고 室町幕府라 칭하였다. 그러나 室町幕府의 통치력은 조선정부가 막부를 조선과 대등한 국가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호족의 하나로 파악할 정도로 미약하

였다. 게다가 1467년 將軍襲職을 둘러싸고 일어난 應仁이 亂으로 11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장군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국내정세를 이용하여 畠山·左武衛·細川·山名·京極殿 등 유력 守護大名의 명의를 사칭한 假使(王城大臣使)들이 1470년 이후에 급증하였던 것이다.²¹⁾

6. 일본의 외교체제의 모순

중세의 일본에서는 五山派의 禪僧들이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등 室町幕府의 외교활동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들 외교승들이 위사의 서계를 작성하는 등 위사의 파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자가 1463년 일본국왕사의 부사로 도항하였던 天龍寺의 五山僧인 仰之範高이다. 그는 사행이 끝난 후 대마도주 宗貞國의 요청으로 京都에 돌아가지 않고 대마도에 머물면서 문인과 서계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조서계의 작성에도 깊이 가담하였던 것이다.²²⁾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보면 일본국왕사를 사칭한 위사는 막부장군의 둑인 하에 對馬島主와 五山禪僧에 의해서 파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7. 대마도의 자연환경 및 경제적 빈곤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조선과 일본의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면적의 95% 이상이 농사를 짓을 수 없는 산지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보면 대마에서 九州의 博多까지 보다는 부산이 훨씬 가까웠다. 이러한 자연적 지리적 조건 때문에 대마도는 고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특히 왜구문제가 일단락 된 對馬島征伐이후 부터는 조선과의 통교무역이 대마도의 생활을 좌우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1510년 삼포왜란이후 양국간의 외교관계가 단절과 회복이 반복되면서부터 대마도의 대조선통교는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마도에서는 국왕사를 사칭하는 위사를 파견하거나 폐지되었던 深處倭의 통교권을 부활하여 대마도주가 장악하고 그

21) 橋本雄, 1997,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王城大臣使の偽使問題> 『史學雜誌』 106-2

22) 橋本雄, 위 논문

들 명의의 위사를 파견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1510년 이후 심처왜와 일본국왕사를 사칭한 위사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IV. 위사의 파견 실태 및 주체

위사의 파견실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長節子, 村井章介, 高橋公明, 米谷均, 橋本雄, 伊藤幸司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행하여졌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夷千島王遐又나 王城大臣使, 日本國王使, 深處倭의 名義를 사칭한 위사 등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조선에 도항한 사절이 僞使인지 真使인지를 밝히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사의 파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朝鮮王朝實錄》 《海東諸國記》 등의 국내사료와 《善隣國寶記》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 등 일본사료를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여 조선에 도항한 일본사절에 대한 시기별 지역별 정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일본사절의 진위여부와 위사의 시기별 지역별 특징, 위사의 유형과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위사가 양국간의 외교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의미 등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사의 파견은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對馬島主의 주도하에 외교문서의 작성과 담당하였던 五山禪僧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對馬島主는 대규모로 교역을 할 상업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대자본을 소유한 博多商人과 함께 위사를 파견하고 무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²³⁾ 그러나 위사 파견의 조직성과 불법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따라서 위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위사의 파견이 어느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불법성은 결국 조일간의 외교체제를 무너트리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외교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23) 米谷均, 1997, <16世紀日朝關係における偽使派遣の構造と實態> 『歴史學研究』 697

V. 금후의 연구과제

이상에서 지적한 것 이외에도 위사문제와 관련하여 금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한일관계에서 위사는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경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일본에서 조선에 파견하는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짓의 사신 또는 통교자들이다. 이러한 위사는 한일간의 외교관계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당시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조일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시대 조일외교의 성격 및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사에서 위사의 위치 및 역할, 위사가 양국관계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장경 구청은 피로·표류인의 송환과 함께 조일간의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대장경을 구청하기 위해 조선에 온 일본국 왕사나 守護大名의 사절 중에 위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대장경구청과 위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사의 파견과 대장경 구청과의 관계 및 외교승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심도있게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위사의 파견을 둘러싼 대마도주와 막부장군과의 관련성이 보다 더 명확하게 규명되어져야 한다. 삼포왜란이후 일본국왕사를 사칭한 위사가 많이 파견되는데, 이들은 도항시에 대마도주의 문인을 소지하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위사와 대마도주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마도의 위사 파견을 막부장군이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일본에서 위사를 파견한 목적을 한일간의 외교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역의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함께 교역품이 양국의 산업 및 문물의 발달에 끼친 영향 등을 통해서 다각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사로 판명된 사절 또는 위사일 가능성이 있는 사절에 대해서 조선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그리고 위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인식이 대일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日本國王使를 사칭한 위사와 琉球國王使를 사칭한 위사를 비교 분석하여

이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여야 한다. 이는 조선의 동아시아 외교관계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째,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서 圖書나 書契의 위조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위조된 도서나 서계의 재질 및 제작기법 등의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위조되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주제들이 다각도로 연구되어야만 위사의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조선시대 외교체제의 구조와 성격 등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전기 한일관계사 연구 논문 목록 (1945년~2003년)

〈저술〉

- 李鉉淳, 1964, 『朝鮮前期 對日交涉史研究』, 한국연구원.
金柄夏, 1969, 『李朝前期 對日 貿易 研究』, 한국연구원.
국방군사연구소편, 1993, 『倭寇討伐史』, 국방군사연구소.
손승칠, 1994,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샘.
羅鍾宇, 1996,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원광대 출판부.
한일관계사학회편, 1998,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국학자료원.
한일관계사학회편, 1998,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1·2, 자작나무.
한일관계사학회편, 2001, 『조선시대 한일표류민연구』, 국학자료원.

〈개별논문〉

- 李仁榮, 1948, <壬辰倭亂前後의 對外關係> 『新天地』 3-10
申基碩, 1957, <高麗末期의 對日關係 - 麗末倭寇에 關한 研究-> 『社會科學』 1, 한국사회과학연구회
申奭鎬, 1959, <麗末鮮初의 倭寇와 그 對策> 『國史上의 諸問題』 3, 국사편찬위원회
李鉉淳, 1959, <李朝初期 倭人接待考(상)(중)(하)』 『史學研究』 3·4·5
李鉉淳, 1959, <朝鮮初期 向化倭人考> 『歷史教育』 4, 씨는 이 논문을 약간 수정하여 <歸化倭人>이란 제목으로 『朝鮮前期 對日交涉史研究』(한국연구원, 1964)에 수록하였다.
李鉉淳, 1960, <朝鮮前期 서울에 온 倭野人에 대하여> 『鄉土서울』 10, 서울시사편찬위원회
李鉉淳, 1960, <三浦倭亂原因考> 『海圓黃義敦先生古稀紀念史學論叢』
李鉉淳, 1961, <三浦倭亂後 對倭交涉再開始에 對하여> 『歷史教育』 5
李鉉淳, 1961, <朝鮮初期倭人收稅考 -三浦恒居倭人과 釣魚倭人을 中心으로-> 『史學研究』 9
李鉉淳, 1962, <서울중심 조선초기 對倭貿易考(상, 중, 하)> 『향토서울』 13-15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이 논문은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李鉉淳의 『朝鮮前期 對日交涉史研究』(한국문화원, 1964)에 <對倭貿易>이란 제목으로 수록하였다.
李鉉淳, 1962, <三浦倭亂後 倭人接待貿易에 對하여> 『韓日文化』 1-1, 부산대 한일문화연구소
李鉉淳, 1964, <朝鮮前期 對倭使節派遣의 種別과 意義> 『史學研究』 17, 한국사학회
李鉉淳, 1964, <對日文化·技術·醫藥品交流> 『朝鮮前期 對日交涉史研究』 한국연구원

- 金龍基, 1964, <李朝 成宗代의 倭物庫에 대하여> 『논문집』 4, 부산대학교
- 김창수, 1965, <서평: 朝鮮前期 對日交涉史 研究(이현종 저)> 『동국사학』 8, 동국대학교 사
학과
- 金柄夏, 1965-67, <李朝前期에 있어서 對日南海物產貿易>(상)(중)(하) 『經濟學研究』 13·14
·15, 韓國經濟學會
- 閔丙河, 1965, <李朝成宗時倭物庫에 대하여> 『國際文化』 3, 성균관대 국제문화연구소
- 姜尙雲, 1966, <麗末鮮初의 韓日關係史論> 『大韓國際法學論叢』 11-1, 대한국제법학회
- 송정현, 1966, <완도와 왜구 -이조시대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4, 전남대학교 호남
문화연구소
- 李載昌, 1966, <麗末鮮初의 對日關係와 高麗大藏經> 『불교학보』 3·4, 동국대학교 불교문화
연구소(이재창, 『韓國佛教史의 諸問題』 우리출판사, 1993. 所收)
- 金柄夏, 1967, <李朝前期에 있어서의 日本國內生產物의 輸入> 『商經論叢』 7, 단국대
- 李鉉淳, 1967, <서평: 中世對外關係史(田中健夫 저)> 『건대사학』 5, 건국대학교 사학회
- 金柄夏, 1968, <李朝前期의 對日貿易性格> 『亞細亞研究』 11-4,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金柄夏, 1969, <李朝前期 織物生產과 對日輸出> 『논문집』 6, 경희대학교
- 金柄夏, 1969, <高麗大藏經과 對日輸出> 『李朝前期 對日 貿易 研究』 한국연구원
- 劉鳳榮, 1970, <倭寇와 十勝之地> 『白山學報』 8, 백산학회
- 劉元東, 1970, <서평 : 李朝前期 對日 貿易 研究(金柄夏 저) 『역사학보』 45, 역사학회,
- 李鉉淳, 1973, <왜인관계>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 李銀圭, 1974, <15世紀初 韓·日交涉史研究 -對馬島征伐을 中心으로-> 『湖西史學』 3
- 李鉉淳, 1974, <왜구> 『한국사』 8, 국사편찬위원회
- 孫弘烈, 1975, <高麗末期의 倭寇> 『史學志』 9, 단국대 사학회
- 孫弘烈, 1975, <麗末·鮮初被倭俘虜의 刷還> 『史叢』 19, 고려대 사학회
- 金泰俊, 1976, <鶴峰 金誠一의 日本目錄> 『明知語文學』 8, 명지대
- 安輝濬, 1976, <朝鮮王朝初期의 繪畫와 日本室町時代의 水墨畫> 『韓國學報』 3, 一志社
- 吳京愛, 1977, <麗末鮮初 倭寇發扈와 對馬島 征伐> 『君子社會』 4, 首都女師大 社會教育科
- 李鉉淳, 1977, <高麗와 일본과의 관계> 『東洋學』 7,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李鉉淳, 1977, <韓日關係로 본 對外意識> 『南漢書佐鑄박사화갑기념논총 현대사학의 제문제』
일조각
- 李鉉淳, 1977, <한일관계의 역사적 성찰> 『전북사학』 1, 전북사학회
- 孫弘烈, 1978, <麗末·鮮初의 對馬島征伐> 『湖西史學』 6, 호사사학회
- 羅鐘宇, 1980, <高麗末期의 麗日關係 -倭寇를 中心으로-> 『全北史學』 4, 전북대 사학회
- 李鍾學, 1980, <實戰에서의 兵力動員問題> 『한국사론』 7, 국사편찬위원회

- 韓容根, 1980, <高麗末 倭寇에 대한 小考> 『慶熙史學』 6·7·8, 경희대 사학회
- 李鉉淳, 1981, <高麗·朝鮮時代 韓日關係의 展開> 『日本學』 1,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 趙英彬·鄭杜熙, 1981, <朝鮮初期 支配層의 日本觀 -申叔舟의 『海東諸國紀』를 중심으로-> 『人文論叢』 9, 전북대 인문과학연구소
- 安炳周, 1982, <退溪의 日本觀과 그 展開> 『退溪學報』 36, 퇴계학연구원
- 송정현, 1982, <乙酉倭變에 대하여 -강진주변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12,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 李鉉淳, 1982, <對倭貿易> 『한국사론』 11, 국사편찬위원회
- 張學根, 1983, <朝鮮의 對馬島 征伐과 그 支配政策 -對外政策을 중심으로-> 『論文集』 8, 해군사관학교
- 李鉉淳, 1984, <조선전기의 日本관계> 『동양학』 1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車勇杰, 1984, <高麗末 倭寇防守策으로서의 鎮戍와 築城> 『史學研究』 38, 한국사학회
- 申基碩, 1985, <朝鮮王朝 初期의 對日關係> 『學術院論文集』 24(인문사회과학편)
- 申基碩, 1985, <朝鮮朝 前期의 對日通交 -三浦恒居倭人問題를 中心으로-> 『玄岩申國柱博士 華甲紀念 韓國學論叢』
- 安輝濬, 1985, <日本에 미친 朝鮮初期繪畫의 影響> 『季刊美術』 36
- 孫承喆, 1988, <朝鮮朝 事大交隣 政策의 成立과 그 性格> 『溪村閔丙河教授停年記念史學論叢』
- 鄭 光, 1988, <譯科의 倭學과 倭學書> 『韓國學報』 50
- 車龍杰, 1988, <高麗末 朝鮮前期 對倭關防史 研究>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 金柄夏, 1989, <乙卯倭變考> 『탐라문화』 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羅鐘宇, 1989, <朝鮮前期 韓日文化交流에 대한 研究 -高麗大藏經의 日本傳授을 중심으로-> 『龍巖車文燮教授華甲紀念論叢 朝鮮時代의 諸問題』
- 韓文鍾, 1989, <朝鮮初期 李藝의 對日交涉 活動에 대하여> 『全北史學』 11·12, 전북대 사학회
- 羅鐘宇, 1990, <朝鮮初期의 對日本統制策에 관한 고찰> 『如山柳炳德博士華甲紀念論叢 韓國哲學宗教思想史』
- 河宇鳳, 1990, <朝鮮初期 對日使行員의 日本認識> 『國史館論叢』 14, 국사편찬위원회
- 羅鐘宇, 1992, <朝鮮初期의 對倭寇政策> 『중재장충식博士華甲紀念論叢 歷史學扁』
- 丁仲煥, 1992, <왜구에 대한 일고찰 -고대 및 高麗후기의 倭寇를 중심으로> 『港都釜山』 9
- 池斗煥, 1992, <세종대 對日政策과 李藝의 對日活動> 『韓國文化研究』 5,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 韓文鍾, 1992, <朝鮮前期의 對馬島敬差官> 『全北史學』 15, 전북대 사학회
- 손승칠, 1993, <朝鮮時代 交隣體制의 分析과 그 문제점> 『한일관계사연구』 1, 한일관계사

연구회

- 孫承喆, 1993, <朝鮮의 事大交隣政策과 敵禮關係> 『新實學의 탐구』, 열린책들
- 李慶喜, 1993, <高麗末 倭寇의 침입과 對倭政策의 一端面> 『부산여대사학』 10·11합집. 부산여대사학회
- 鄭章植, 1993, <宋希璟이 본 中世日本> 『일본학』 12,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 羅鍾宇, 1994, <조선전기 한·일관계의 성격연구> 『동양학』 24,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羅鍾宇, 1994, <홍건적과 왜구>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 鄭暎錫, 1994, <조선전기 湖南의 倭變에 대하여> 『전통문화연구』 3, 조선대 전통문화연구소
- 河宇鳳, 1994, <조선전기의 대일관계> 『강좌한일관계사』, 현음사
- 노계현, 1995, <朴歲, 金士衡의 對馬島征伐> 『부산사대논문집』 30
- 閔德基, 1995, <室町幕府의 對明朝貢 仲栽요청과 조선의 대응> 『日本歷史研究會』 창간호
- 孫承喆, 1995, <조선시대 日本天皇觀의 유형적 고찰> 『사학연구』 50, 한국사학회(손승철, 『近世朝鮮의 韓日關係研究』 국학자료원, 1999. 소수)
- 崔永禧, 1995, <倭亂 전의 정세>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 河宇鳳, 1995, <일본과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 韓文鍾, 1995, <조선전기 대마도의 통교와 대일정책> 『한일관계사연구』 3
- 김동철, 1996, <국제교역의 발달과 마찰> 『한국사』 28, 국사편찬위원회
- 閔德基, 1996, <寧波의 亂과 朝鮮·日本·明의 관계> 『重山鄭德基博士華甲記念韓國史學論叢』
- 朴相國, 1996, <大藏都監과 高麗大藏經版> 『한국사』 21, 국사편찬위원회
- 손승철, 1996, <대마도 조일(朝日) 양속관계>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손승철, 『近世朝鮮의 韓日關係研究』 국학자료원, 1999. 소수)
- 孫承喆, 1996, <조선전기 서울의 東平館과 倭人> 『향토서울』 56, 서울시사편찬위원회(손승철, 『近世朝鮮의 韓日關係研究』 국학자료원, 1999. 所收)
- 李領, 1996, <고려말기 왜구구성원에 관한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5, 한일관계사연구회
- 이재범, 1996, <三浦倭亂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再檢討> 『韓日關係史研究』 6
- 이창훈, 1996, <대마도와 한일외교관계> 『정치외교사논총』 14,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이채연, 1996, <조선전기 대일 사행문학에 나타난 일본인식> 『한국문학논총』 18, 한국문학회
- 張得振, 1996, <고려말 倭寇侵略期 '民'의 동향> 『국사관논총』 71, 국사편찬위원회
- 하우봉, 1996, <한국인의 대마도인식>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 韓文鍾, 1996, <朝鮮前期의 受圖書倭人> 『韓日關係史研究』 5, 한일관계사학회
- 韓文鍾, 1996, <朝鮮前期 對日外交政策 研究 -對馬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 金琪燮, 1997, <14세기 倭寇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 『한국민족문화』 9,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朴漢男, 1997, <공민왕대 왜구침입과 禹玄寶의 ‘上恭愍王疏’> 『군사』 34, 국방군사연구소
- 李領, 1997, <'倭寇의 공백기'에 관한 고찰> 『일본역사연구』 5, 일본역사연구회
- 韓文鍾, 1997, <조선초기의 왜구대책과 대마도정벌> 『전북사학』 19·20, 전북대학교 사학회
- 나종우, 1998, <왜구는 일본 호족들이 조종한 해적집단이다>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1, 자작나무
- 羅鍾宇, 1998, <中世 日本人의 韓國認識>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국학자료원.
- 閔德基, 1998, <조선시대 交隣의 이념과 국제 사회의 교류> 『민족문화』 21, 민족문화추진회
- 李慶喜, 1998, <高麗後期 對日貿易史 연구동향과 과제> 『白楊史學』 15, 신라대
- 李正守, 1998, <15·16세기의 대일무역과 경제변동> 『부대사학』 22, 부산대학교사학회
- 장득진, 1998, <왜구는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2, 자작나무
- 장득진, 1998, <왜구를 징벌한 대마도정벌>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2, 자작나무
- 정우택, 1998, <일본에 있는 고려불화와 팔만대장경>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1, 자작나무
- 村井章介, 1998, <中世 韓日兩國人の 相互認識>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국학자료원
- 하우봉, 1998, <韓日關係와 相互認識>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국학자료원
- 韓文鍾, 1998, <대마도는 한국땅이다?>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2, 자작나무
- 김보한, 1999, <一揆와 倭寇> 『日本歷史研究』 10, 일본역사연구회
- 小幡倫裕, 1999, <鶴峯 金誠一의 日本使行에 대한 思想的 고찰-鶴峯의 사상과 華夷觀의 관련 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1, 한일관계사학회
- 유재춘, 1999, <14~17세기초 한일양국 평지치소성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성곽의 치소·군사기능의 분리와 통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7, 한국사학회
- 유재춘, 1999, <세종대 崔浣사건과 한일관계의 추이> 『한일관계사연구』 10, 한일관계사학회
- 유재춘, 1999, <한일양국의 山城에 대한 비교연구 -14~17세기경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1, 한일관계사학회
- 李領, 1999, <일본인이 보는 왜구의 정체 -‘庚寅 이후 倭寇’와 일본 국내정세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46호, 역사문제연구소
- 閔德基, 2000, <日本史上의 ‘國王’稱號 -일본 중·근세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3, 한일관계사학회
- 李領, 2000, <庚寅年 倭寇와 일본의 국내정세> 『國史館論叢』 92, 국사편찬위원회

- 李薰, 2000, <朝鮮前期 漂流·漂着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漂流民送還>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국학자료원
- 韓文鍾, 2000, <조선전기 對馬 早田氏의 對朝鮮通交> 『한일관계사연구』 12, 한일관계사학회
韓文鍾, 2000, <조선전기 日本國王使의 對朝鮮通交>(한일관계사학회 월례발표요지, 2000년
12월)
- 김보한, 2001, <少貳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日本歷史研究』 13. 일본역사연구회
김보한, 2001, <海洋文化와 倭寇의 소멸> 『문화사학』 16
- 손승철, 2001, <조선전기 피로·표류민송환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조선시대 한일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 이 훈, 2001, <조선전기 조·일간의 표류민송환과 교린> 『조선시대 한일표류민 연구』 국
학자료원
- 韓文鍾, 2001, <朝鮮前期 왜인통제책과 한일관계> 『京畿史論』 4·5, 경기대 사학회
韓文鍾, 2002, <조선전기 한일관계연구의 회고와 전망> 『韓日關係史의 回顧와 展望』, 國學
資料院
- 이지선, 2002, <朝鮮前期 日本國王使 研究>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 佐伯弘次, 2002, <전후 일본에 있어서 중세 일조관계사연구> 『韓日關係史의 回顧와 展望』,
國學資料院
- 韓文鍾, 2002, <조선전기 일본의 大藏經求請과 한일 간의 문화교류> 『한일관계사연구』 17,
한일관계사학회
- 김대길, 2003, <병신년(丙申年, 1596) 통신사행(通信使行)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 손승철, 2003, <조선시대 한일관계사료의 소개> 『한일관계사연구』 18, 한일관계사학회
하우봉, 2003, <조선전기 대외관계에 나타난 自我認識과 他者認識> 『한국사연구』 123
한문중, 2003, <고려말 조선초의 '倭萬戶'> 『전북사학』 26, 전북사학회